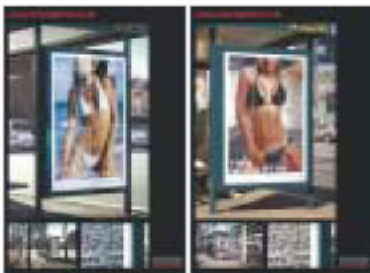


대성셀틱가스보일러를 알리는 새 광고 '가스비 다이어트' 편이 7월부터 선보이고 있다. 자신에 찬 표정의 S라인 현영이 투박하게 생긴 깡통로봇(기존보일러)과 S라인 다이어트 대결을 펼친다. 바둥거리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던 깡통로봇은 결국 과부하로 연기를 내뿜으며 가스비로 대변되는 돈을 쏟아내고 만다. 줄줄 새는 돈과 함께 폭발해버린 깡통로봇을 뒤로하고 S 라인 다이어트에 성공한 현영이 대성셀틱의 S라인 콘덴싱 보일러와 함께 그려지면서 이번 광고는 마무리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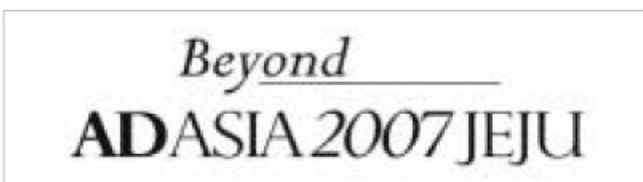
오리콤, 제 50회 뉴욕페스티벌 광고제 동상 수상



오리콤이 세계 3대 광고영화제 중의 하나로 올해 50회를 맞는 뉴욕페스티벌 광고제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위한 공익 광고. 멀리서 보면 섹시한 포즈의 수영복 차림의 여자와 '가까이 오세요(Come closer to me)', '날 봐요(Take a look at me)'라는 유혹적인 카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지만 가까이 가 보면 여자의 모습이 수많은 실종 아동들의 얼굴 사진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서 여자의 모습보다 더욱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된다. 오리콤은 지난해에도 뉴욕페스티벌 광고제에서 'Finalist(본선 진출작)' 세 편을, 칸느국제광고제에서 'Shortlist(본선 진출작)' 한 편을 수상하며 오리콤의 크리에이티브 파워를 세계무대에서 입증했다.

제25차 아시아광고대회(AdAsia 2007 Jeju) 준비 박차



제 25차 아시아광고대회(AdAsia 2007 Jeju) 조직위원회(조

직위원장 : 홍석규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회장, 사무총장 : 지덕현 PDS미디어 대표)가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월 21일(일)부터 24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광고대회는 1958년 도쿄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관련 컨퍼런스로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광고전략과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에 아시아광고대회(서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07 아시아광고대회는 세계 10위권(2005년 광고비 기준 세계 11위, 아시아 3위)의 광고대국으로 성장한 국내 광고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광고산업의 미래 성장을 이끌 비즈니스 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 호기로 삼고, 광고계의 제도약을 위한 의지를 응집할 계획이다.

[신간안내] 바람이 흠이 가르쳐주네



박효신 전 한국광고주협회 상무가 최근 '바람이 흠이 가르쳐주네'라는 신간을 발간했다. 이 책은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지혜와 무공해 삶을 통한 행복을 통해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박효신

전 상무는 현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광고 심의위원, 농림부 여성농업인육성자문회의 위원, 여성신문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저서로는 <자 이제 여성시대, 엔터키를 치자>, <여자, 아름다운 성공을 위하여>가 있다.